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9. 13(화)	
		작 성 문 의	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신강민 과장 / 소방청 정남구 (Tel. 044-200-2347)
* 엠바고 : 9.13(화) 17:00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
연휴기간 ‘국민안전의 파수꾼’ 으로 근무에 만전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9월 13일(화)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 소방서를 방문하였다.
 - 이는 민족 명절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, 현장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 - * (참석) 권순경 서울소방재난안전본부장, 최재천 용산소방서장, 최규태 현장대응단장
- 황 총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,
 - 추석 연휴에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,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일선 소방관서는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임을 강조하고
 - 용산소방서 관내에는 용산역, 이태원, 용산전자상가 등 다중이용 시설이 많으므로 안전사고 취약시설과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,
 -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


- 특히, 용산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위 김창기 등 소방영웅 3명*을 직접 격려하면서, 소방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매우 크므로
 - * 소방위 김창기(화재진압 유공), 소방장 김호영(인명구조 유공), 소방장 심지영(응급처치 유공)
- 항상 사명감을 갖고 ‘국민안전의 파수꾼’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(참고) 용산소방서 및 소방영웅 현황

□ **용산소방서 현황**

- 위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(한강대로2가)
- 관할 : 서울특별시 용산구
 - 면적 : 21.87km² (서울 면적의 3.6%) * 미군기지 2.65km²
 - 인구 : 233,342명 (107,512세대)
 - 소방대상물 : 5,369개소 (근린 3747, 복합 553, 시장 8, 기타 1061)
- 조직·인력·장비
 - (조직) 3과(9팀), 1현장대응단*, 119안전센터(4)
 - (인력) 소방공무원 250명, 의용소방대원 160명
 - (장비) 소방차 39대(펌프 5, 물탱크 4, 구급 5, 특수 5, 기타 20)
- 소방활동 : 13,016건('16.8월말 기준)
 - 화재 : 175건(0.73건/1일) - 구조 : 1,138건(4.75건/1일)
 - 구급 : 10,187건(42.61건/1일) - 생활안전 : 1,516건(6.34건/1일)

□ **소방영웅 현황**

사 진	직 위	성 명	비 고
	진압대원 (소방위)	김 창 기 (53세)	· 화재진압대원 경력 30년 · 아현동가스폭발('94), 삼풍백화점 붕괴('95), 송례문화재('08) 참여 ·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서울1위
	구조대원 (소방장)	김 호 영 (45세)	· 구조대원 경력 20년 · 독산동 의류공장화재 인명구조 3명('15) · 서빙고동 아파트화재 인명구조('16)
	구급대원 (소방장)	심 지 영 (39세)	· 구급대원 경력 15년 · 구급출동 1,536건, 1,075명 이송 · 심정지환자 CPR소생 3회